

길을 묻는 이에게



대행스님

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물
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
 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
 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
 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
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.
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
 드립니다.

● 보낼곳: 우 110-170
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-33
 현대불교신문사
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
 ● FAX: (02)737-0697/8
 ● PC통신: 인터넷부디피아
 http://www.buddhapia.com/mem/hna
 nmaum

법공양 페이지

모든게 내탓인데 누굴 원망하라

17면에서 계속

올리거나 절을 할 때도 단 일 배만 하더라도
 전 배 올린 거 못지 않게 되는 거
 죠.

혹시 어느 도량에 가지더라도 법당에
 들어가시면 바깥으로 깎달려서 하지 마
 시고 만 분이 모셔져 있다 하더라도 그
 것은 모두가 들어 안된 까닭에 내 한마
 음에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즐
 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.
 항상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으로써
 우리 일체가 다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
 면 됩니다. 그러기 때문에 법당에 들어가
 서도 그렇고 일거수 일투족을 닦쳐오는

다. 듣는 것도 고정되게 들지 못하고 만
 나는 것도 고정되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
 움직여가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
 다. 그런데 내가 했다 안했다 할 수 있
 겠습니까.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나
 아가며,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이 한생각
 에 찰나 전으로 돌아가고 찰나 후로 돌
 아가고 현실에 공해서 돌아가고 이러는
 데 여러분들이 한 게 따로 있습니까? 지
 금도 힘이 없이 이미 여여하게 가는데
 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사는게
 힘든 겁니다. 내가 했다고 붙들고 놓칠
 못하고 속을 태우니 삶이 고통이 아닐
 수가 없죠.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님을
 알아 합해서 쓸 줄만 안다면 여여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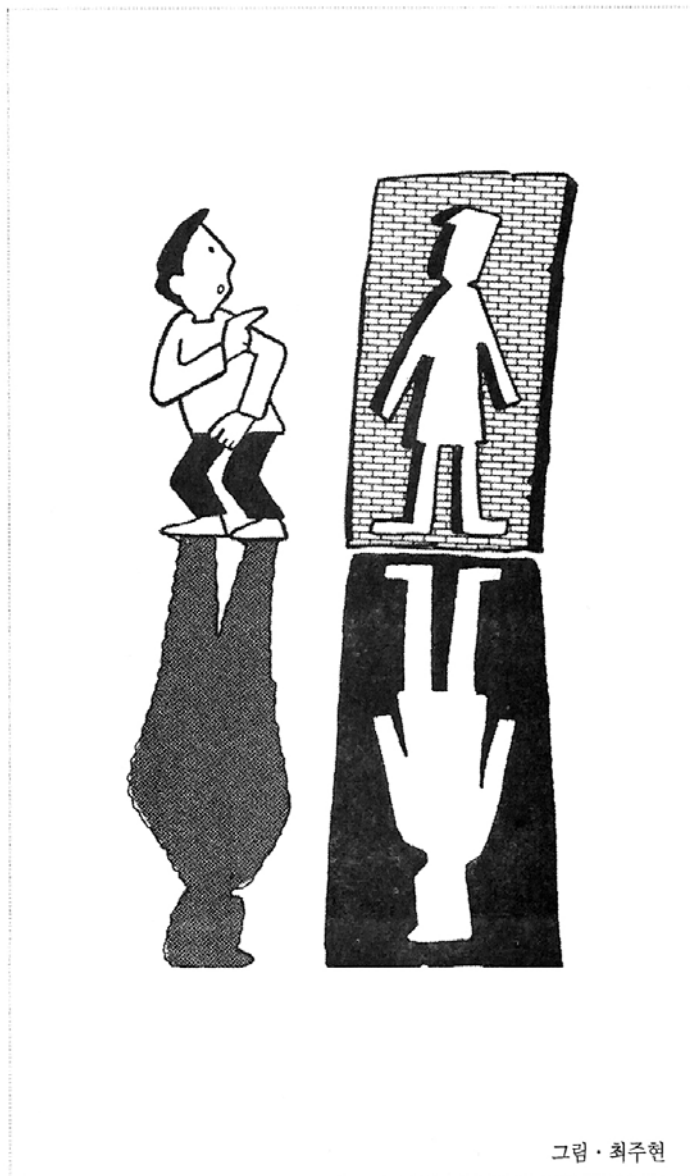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'해주십시오'가 아닙니다

그럼 돌이 되거든요 보살의 많은 이름
 부처님 한생각에서 나온 방편일 뿐

대로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내가 하
 는 게 아니라 나의 자발이 하는 거라고
 믿어 보십시오.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
 을 때 각자 자기 자발의 주인공에게 모
 든 것을 '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' 또
 아쁘면 '너만이 낮게 할 수 있어' 하고
 관한다면 내 자성불이 관세음이고 약
 사가 되어서 해결하는 거죠.

'해주십시오'가 아닙니다. 그럼 벌써
 돌이 되거든요. 보살의 이름이 그렇게 많
 아도 바로 부처님 한 생각에서 나온 방
 편 이름일 뿐입니다. 그 이름이 하는
 게 아니라 그 진실이 하는 겁니다. 그러
 니가 그 이름과 더불어 진실한 마음이
 같이 합해서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다
 이 소립니다.

참으로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이 우리
 들의 삶에 다 들어 있습니다. 아까도 예
 기했듯이 마음이라는 그 마음은 얼마나
 많은지 그 마음이 쓰이지 않는 데가 한
 군데도 없습니다. 너무 많아서 마음이 없
 는게 진짜 마음이기도 합니다. 무의 세계
 에 모두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신
 다면 마음으로 통신을 하고 육신은 물질
 계에 뛰고 이렇게 양 개체를 다 가지고
 행해야 사람사는 것과 같고 삶에 보람이
 있고 어떠한 문제가 닦쳐도 대처해 나갈
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. 그러기
 때문에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

붙들고 있으니 힘들죠

우리의 육신 속에는 생명과 의식과 모
 습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. 잔뜩 들어있
 는 여기에서 내가 했으니 팔자운명이
 어머니 하신다면 그것이 인력이 돼서
 현실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.

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바로
 심성과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심성
 의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천체물리
 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. 우리
 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
 느 한쪽에서만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
 다. 마음으로 할 일이 있고 육신으로 할
 일이 있고 이혼으로 할 일이 있고 학술
 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, 무조건 정신계는
 밀치고 보이는 것만 하신다면 자기가 자
 기 뿌리를 배신하는 게 되고 자기를 이
 끌어가는 선장을 무승게 생각하는게 됩
 니다. 그러니 하는 일마다 결림이 많고
 어려운 일이 많아지죠. 바로 할나전이 과
 거고 할나후가 미래입니다. 현실은 고정
 됴이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뉘 뿐이지
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도입니다.

삶은 고(苦)가 아니라고 한 말에 대해
 의문을 가지는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

다. 듣는 것도 고정되게 들지 못하고 만
 나는 것도 고정되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
 움직여가는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
 다. 그런데 내가 했다 안했다 할 수 있
 겠습니까.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나
 아가며,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이 한생각
 에 찰나 전으로 돌아가고 찰나 후로 돌
 아가고 현실에 공해서 돌아가고 이러는
 데 여러분들이 한 게 따로 있습니까? 지
 금도 힘이 없이 이미 여여하게 가는데
 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해서 사는게
 힘든 겁니다. 내가 했다고 붙들고 놓칠
 못하고 속을 태우니 삶이 고통이 아닐
 수가 없죠.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님을
 알아 합해서 쓸 줄만 안다면 여여하

교차로에 서있는 삶

요즘 세계적으로 비행기 사고가 많이
 나고 청소년 문제도 많은데, 여러분께서
 그렇게 안되게끔 마음을 많이 내십시오.
 또 이 마음은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
 있습니다. 정신계의 한 가운데 말입니다.
 거기서, 그 구멍 밖에는 들고 나고 하는
 도리가 없으니 거기다 재입력을 하십시
 오. 가정에서도 잘 나오는 것 잘못 나오
 는 것을, 잘 나오면 감사하게 놓고 잘못
 나오면 다시 바꾸어 돌려 놓는 겁니다.
 만약에 구멍물이 나온다면 새 물로 대체
 해서 바꿔 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일
 체 만물이 다 빠져서 아픔을 느끼고

고통을 받고 오늘 이렇다가도 내일 저렇
 고, 내일 저렇다가도 모레 그렇고 이렇게
 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픔을 어떻게 다
 대처하시겠습니까?

지금 현재에 한 철 사는 것도 그런데
 지금 우리는 중세에서 살고 있습니다.
 상세계로 올라가느냐 하천세계로 떨어지
 느냐 하는 교차로가 바로 여겁니다. 지금
 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
 사느냐에 따라서, 즉 그 마음이 인간답게
 살았는지 짐승같이 살았는지에 따라 다
 시 차원높은 인간도 되고 짐승으로 떨어
 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. 자기가 어떻게
 살았는지 그 차원에 따라서 다음삶이 주
 어지고 차원이 주어지게 되니 남 탓할
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짐승들도 그 모습만
 다르고 차원이 낮을 뿐이지 생명은 불이
 아닌 것입니다.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또
 공부를 해야만 하죠. 눈물겹도록요. 그러
 니 여러분들이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

내 탓으로 돌리세요. 항상 가정에서도 네
 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망했지, 내가 잘못
 했으니까 어떻게, 또 너 때문에 리는 등
 이렇게 하신다면 언제까지나 해결이 안
 납니다.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십시오.
 금방에 가면 금끼리 모여있고 냐마전에
 가면 냐마끼리 모여있고 강릉은 강릉끼
 리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모여있
 는 거 보셨을 겁니다. 한 가정이 이루어
 지는 것도 차원들끼리 만나는 것입니다.
 천 리 길이 떨어져 있어도 차원끼리 만
 나요. 멀리서 왔어도 배는 배대로 놓으니
 까요. 저절로 자동적으로 놓이게요. 그런
 데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하고 싸울
 수 있습니까? 똑같은 차원끼리 만났는데
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?

마음 따뜻하면 모든게 풀려

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부드럽게
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면서 내
 주인공이 '그렇지 않게 당신만이 할
 수 있잖아' 하고 말한다 이 소립니다. 자
 식 문제도 그렇습니다. 속썩었다 하더라
 도 그 애 탓이 아니라 바로 자기 탓이죠.
 현재만 보니 몰라서 그렇기 자기가 과거
 에 그렇게 지어놓지 않았으면 자식이 그
 런 행을 하겠습니까. 그러니까 자기 탓
 으로 돌리고 자기한테 되 놓아야만이 앞서
 입력된 것이 지워지고 새로운 게 입력이
 돼서 자식과 부모가 한마음이 될 수 있
 습니다.

자식이 공부를 못한다 하는 그것도 과
 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기한
 데 주어진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을
 없애려면 '그놈의 새끼, 저놈의 새끼' 하
 고 욕하지 말고 '이 모두가 내 탓이로구

나. 과거로부터 지어놓은 것 때문에 지금
 현실에 나오는구나. 그러면 주인공 너만
 이 이것을 알아. 너만이 해결할 수 있
 어.' 그리고 상대방에게 '출자는 않았니?
 배고프지는 않았니?'하고 부드럽게 해주
 란 말입니다.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도
 스스로 본인이 마음이 나와 하는 거지
 마음이 안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?
 그리고 마음이 따뜻하면 풀리게 돼 있어
 요.

생활 속에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또 부
 인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으로
 고장난 것은 마음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
 지 때리고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.
 우리의 마음은 일체 만물과 가설이 돼
 있고 부모라는 마음과 자식이라는 마음
 에, 남편이라는 마음에 또는 부인이라는
 마음에 가설이 돼 있으니 항상 자기
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닦치는 대로 내려,
 너만이 지켜줄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해
 줄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다,
 안되는 것도 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
 다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라는 얘깁니
 다.

자식을 잃어버렸을 때, 또는 공부를
 안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오고,
 뭐나 훔쳐 가지고 나가고 이런다면 그
 가정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? 그런 것
 도 이 마음 하나만 될 것을 그렇게 허덕
 이지 않습니다.

부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뜻을 생각하
 면 그렇게 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
 자식한테도 "그동안 나가서 있느라고 얼
 마나 고생했니? 배고프지 않나?"하고
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든지 "내가 살아가
 는 것도 네 주인공이 알아서 하겠지. 널

믿는다" 하고 좋은 말로 해주고, 또 부인
 이 남편을 보고도 그렇고 남편이 부인을
 보고도 그렇고,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려
 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. 돈도 들어오
 다가..., 이렇게 봐요, 돈은 살아있지 않
 은가요? 돈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거
 든요. 돈이 생각할 때도 저렇게 싸우는
 집에서는 날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할 테
 니까 그런 집에는 안 들어가고 싶죠. 그
 러니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아신다면 모
 든 것이 낙담해질 것입니다.

넉넉하게 살수 있는길

우리 생활 속에서 만물을 들고 내는
 것이 그대로 여여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

이 그걸 한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어 팔팔
 맵니까? 안 하겠으면 안하고 주인이 하겠
 으면 할 것이지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
 됩니까?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그 불사
 한다고 해서 거지가 밥을 얻으러 오거나,
 또 어떤 사람이 거지로 나왔다고 할 때
 그러면 그 불사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못
 본 척 할 수 있습니까? 그 사람이 부처님
 이고 제일 급한 불사인데도요? 돈이 많아
 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부처님의 심부름
 을 그저 잘하던 못하던 진정으로 진실하
 게, 그저 심부름 하려고 애 쓸 뿐입니다.
 그리고 부처님이 알아서 할 일이면 하계
 하시죠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 어떤

금은 금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모이듯
 똑같은 차원끼리 만나는 법
 그러니 잘했다 못했다 싸울수 있나요

이 도리를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
 여여치를 않고 불안한 생각을 펼쳐버리
 지를 못하는 거죠. 도대체 나를 버린다면
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불어 같
 이 내가 없는 것입니다. 그 내가 없는 도
 리를 안다면 하나도 걸릴 게 없고 여
 한 것입니다. 그리고 걱정도 하나도 할
 게 없어요. 그래서 고가 없다고 하지 않
 았습니까.

꿈·集만 없다면 滅·道도 없고 멀 도
 가 없다면 여여한 것입니다. 그래서 길을
 지나가 돌부리를 찬다 하더라도 그 돌
 부리도 내 스승인 줄 알아야 되겠다 이
 런 소립니다. 일체가 모두 생기지 않았다
 면 내 어찌 그런 걸 보지 않고 혼자서
 공부를 하겠습니까?

그러니 여러분은 내 스승이며 일체 만
 물만생이 다 스승이 아닌 게 없다고 생
 각합니다.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
 은 부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스님들
 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. 말과 뜻과 행
 을 보고 따르라, 이 세가지와 보고 따르
 고 실천하라라고 그랬지 절대 겁대기를 믿

종교를 믿든지 그걸 믿는다고 말로 할
 것이 아니라 가르침대로 행이 따라야 됩
 니다. 그리고 형상을 믿지 마라 한다고
 해서 법당의 부처님을 무시해서도 아니
 됩니다. 처음 공부할 때는 만물이 겹쳐도
 내 마음 속 일팔에서 다 나누어 계산하
 고 가르치고 내 자성불을 믿으라고 하지
 만 공부를 다 하고보면 법당에 부처님도
 그냥 앉아계신 부처님이 아니거든요.

가제를 한 마리 건질래도 내가 가제의
 마음이 아니라면 저항력을 느끼죠. 돼지
 를 건질래도 내가 돼지가 아니되면 돼지
 는 달아납니다. 같이 한마음이 되지 않고
 서는.

또 창녀를 건진다 하더라도 창녀 속에
 내가 들어가서 창녀가 돼야 창녀를 건질
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 어느 거를
 아니 건지시는 게 없고 이득을 보는 게
 없고 이 도량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모두
 우리 지구와 더불어 같이 한 도량 아닌
 게 없다 이런 소리죠. 이것도 나, 저것도
 나, 전부 나니까 나 아님이 하나도 없죠.

오늘 내 이 한마디가 진실되다면, 여러
 분이 마음으로 동참을 하신다면, 아마도
 그 마음은 일체제불이 다 아닐 거고 보
 이지 않는 이익은 아마도 한치의 예누리
 없이 돌아갈 겁니다.

불상 정면에 서면 잘못된지요

문 매일 새벽에 인근 사찰에서 108배
 를 하고 있습니다. 그때마다 저
 부처님 바로 정면에 서서 우러러 보며
 절을 해왔는데 어떤 분이 '정면에서 하
 는게 아니니 비켜서서 하라'고 했습니다.
 정면에서 하는게 잘못이요? 맞습니다.
 수 있어서 좋는데 잘못된 일인지요?

(이법림)

답 좌우로 비켜서시는 게 원칙이고
 예의입니다. 우리가 뒷편에 대할
 때도 정면으로 마주 대하지 않는 게 예
 의 이듯이 말입니다.

부처님 이름이 아닌 부처님께서는 한
 발 한 손 한 자리의 우주 삼천대천 세계
 를 일대사 인연으로 삼으신 까닭에 공심
 으로 부처님과 통하여 중생을 건지시는
 도량의 큰 스님들께서는 정면에 서서
 대중스님들이 좌우로 자리하는 게 원칙
 입니다.

본래 자기는 공하여서 옆에 서는 것도
 없이 서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.

주인공에 놓으면 업이 녹습니다

문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계가 다 없
 일 것이니 주인공 자리에 되놓아서
 업이 녹아 없어진다고 할 수 있는지요?

(강신웅)

답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업이라고 생
 각하지 마세요. 업이란 본래 불을
 자리가 없어서 찰나찰나 화하여 나뉘며
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.

그러니 그냥 자신에게서 나오는 대로
 잘 생각해서 되 놓으면 됩니다.
 나무들이 제 뿌리로 인해 자라나듯이
 자신의 업이니 모든 경계도 자신의 주인공
 공명이 해결하고 잘 이끌어 줄 수 있다
 고 믿고 맡기면 됩니다.

**삶은 결코 쫄가 아니라는
 이 통쾌한 역설!**

삶의 모든 고통이
 결국은
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발판임을
 중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
 大行 스님의 육성 법어집

A5신 288쪽 값 6,000원

여시아문 종로구 견지동 110-33
 737-8881(편집), 737-0696(영업), 팩스 (02)737-0696

이문성
 University Of Memphis, Memphis, Tennessee.